

『三韻通考』·『增補三韻通考』 해제 해제

權仁瀚¹⁾

1. 序言

한국에는 여러 계통의 운서가 존재한다. 강신항(2000: 181)에서는 한국에서 통용된 운서들의 계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중국본토자음을 표시하는 운서

중국인이 만든 운서-『禮部韻略』 등

중국 운서에 한글로 표음한 것-『洪武正韻譯訓』 등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운서-『三韻通考』(이 책에는 反切表示도 없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고 한글로 표음한 운서-『四聲通解』 등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고 한글로 표음한 운서-『經世正韻』, 『韻解訓民正音』 등

한국한자음 표시를 위주로 한 운서

『東國正韻』,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集』 등

위에서 보면, 『三韻通考』는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운서 중에서 중국의 본토 자음을 표시하는 운서류에 속하면서도 反切 表示도 한글 注音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體裁와 特徵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三韻通考』는 조선조에 科試用으로 널리 유포된 운서이지만, 그 編者나 編纂 年代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으로써 李睟光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그 由來에 대하여 각양각색의 견해를 낳게 한 문헌으로,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三重韻 즉, 한면에 平聲·上聲·去聲의 同韻字들을 극히 간략한 주석만을 달아서 한꺼번에 나열하여 보이는 독특한 體裁를 지닌 문헌으로도 유명하다. 그 동안 한국의 韻書를 논급한 자리에서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자료이면서도 아직까지 영인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三韻通考』·『增補三韻通考』를 한 책으로 묶어 규장각자료총서의 하나로 영인함에 즈음하여 這間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두 문헌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2. 『三韻通考』

『三韻通考』는 이름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한 면에서 平聲·上聲·去聲의 세 韻을 한꺼번에 견주어볼 수 있도록 三韻相配式(또는 三重韻)의 體裁로 되어 있는 한국 특유의 운서로 인정되고 있다. 同韻의 平·上·去 三聲字들을 上·中·下 三段으로 배치하여 보인 뒤에 入聲字들을 분리하여 책 끝에 나열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운서들에서는 볼 수 없는 편리한 체제²⁾로 科試用이나 詩作의 참고용으로 안정

1)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2) 전통적인 切韻系 운서들에서는 上平聲, 下平聲, 上聲, 去聲, 入聲의 5卷(또는 4卷)으로 나눈 후, 각 성조별로 운을 분류하여 해당자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同韻字인 東(平), 董(上), 送

맞춤인 방식이다. 비록 글자에 대한 정보가 극히 소략하다는 약점은 있으나, 漢詩를 지을 때 平仄과 押韻을 맞춤에 있어서 이러한 체제는 확실히 유용한 방식임에 틀림이 없으며, 入聲字들을 따로 분리한 것도 古體詩나 墓誌銘 讚詩와 같은 장중한 느낌의 한시가 아니면 入聲字로 押韻하는 예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³⁾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三韻通考』가 조선조에 널리 유포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1. 이처럼 『三韻通考』는 국내에 널리 유포되었기에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들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들을 일일이 소개함이 마땅하나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들만으로도 그 대강을 이해함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규장각 소장본들을 중심으로 그 版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규장각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계열의 『三韻通考』가 소장되어 있다.

(1) 78張本

- ㄱ. 一蓑古 495.13-Sa49ta/ 편자·간행지·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78장)/ 冊大: 24.2×16.2cm/ 四周單邊, 半葉匡郭: 16.3×12.4cm, 有界 9行 14字/ 上下花紋魚尾
- ㄴ. 一蓑古 495.13-Sa49t/ 편자·간행지·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78장)/ 冊大: 21.2×16cm/ 四周單邊, 半葉匡郭: 16.2×12.4cm, 有界 9行 14字/ 上下花紋魚尾 ※版心題名이 “三”이며, 제1-2장을 비롯하여 부분적으로 補寫되어 있음.
- ㄷ. 想白古 411.5-Sa49/ 편자·간행지·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77장)/ 冊大: 26.3×17.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1.2×15.3cm, 有界 9行 14字/ 上下內向黑魚尾 ※책의 뒷부분 入聲 가운데 葉第十六, 洽第十七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며, 1a면이 補寫되어 있음.⁴⁾

(2) 83張本

- ㄱ. 一蓑古 495.13-Sa49/ 편자·간행지·간행자 미상/ 戊申字本/ 1책(83장)/ 冊大: 26.5×18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1.1×14.9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下細花紋魚尾
- ㄴ. 一蓑古 495.13-Sa49tg/ 편자·간행지·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83장)/ 冊大: 25.2×17.2cm/ 四周單邊, 半葉匡郭: 16.4×13cm, 有界 9行 14字/ 上下花紋魚尾

이상의 78장본과 83장본에 대하여 규장각의 해제문에서는 壬亂前 간행본과 戊申字本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康寔鎭(1999: 13~14)에서는 原版 『三韻通考』와 修訂版 『三韻通考』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78장본 중에서는 책의 크기나 魚尾의 형태로 판단하건대, 규장각 소장본 중에서는 (1ㄷ)의 想白文庫本이 가장 이른 시기에 刷出된 판본이 아닌가 한다.⁵⁾ 康寔鎭(1999: 13)에 의거하여 양 판

(去) 세 글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切韻系 운서들에서는 각 권을 일일이 찾아보아야 하는 반면, 『三韻通考』와 같은 삼운상배식에서는 한 면에서 세 글자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기에 그만큼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 李德懋는 「奎章全韻 凡例」에서 “我東科詩 頗其音調蓋亦古詩之類 然古詩則通押入聲 科詩則一切不押 豈非陋規”(우리나라 과거 시험의 시는 자못 그 음조가 대개 고시의 흐름이다. 그러나 고시에서는 입성을 통압하였는데, 과거 시험에서는 일체 압운하지 않았으니 어찌 고루한 규정이 아니라!)라고 함으로써 這問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

4) 규장각 홈페이지에서 각 책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는 서지 정보와 해제문(담당: 조광국)에서의 서지 정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밝혀둔다.

5) 그런데 이장희(2003: 106) 각주 2)에 소개된 이장희 소장본의 “冊大: 28.8×19cm, 半葉匡郭: 22.2×16.5

본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原版 7b면의 去聲 眞韻字 “棄, 弁” → 修訂版 “弁”를 없앴.
- 2) 原版 12b면의 上聲 語韻字 “與, 与” → 修訂版 “与”를 없앴.
- 3) 原版 47b면의 平聲 陽韻字 “涼, 凉” → 修訂版 “凉”을 없앴.
- 4) 修訂版 12a면에서 平聲 微韻에 “唏, 睇, 鐵, 噤, 斐, 漚”자를, 上聲 尾韻에 “隄, 妮, 倝”자를, 去聲 末韻에 “乞”자를 추가함.

위에서 보면, 83장본은 78장본에서 불필요한 異體字들을 정리하는 한편, 빠진 글자들을 보충한 修訂版임이 분명해진다.

이번에 영인하는 판본은 (2ㄱ)의 戊申字로 된 一蓑文庫本인데, 몇 가지 서지 사항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表題는 “三韻通考”로 목서되어 있고, 卷首題와 卷尾題, 版心題 모두 “三韻通考”로 되어 있으며, 책의 裝幀은 5針眼訂으로 되어 있는데, 조현주(1998)에서는 顯宗代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2.2. 『三韻通考』의 체제는 한 면에 平聲段(매 행 3자 배분), 上聲段(매 행 2자 배분), 去聲段(매 행 2자 배분)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상 67b면 3행까지), 이는 平聲字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고려한 배분 방식이거니와, 때로는 上·去聲字가 끝난 후에도 平聲字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한 행 전체를 平聲字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2a면 5행~2b면 6행, 3b면 6행~4a면 2행 등). 또한 三聲 중 어느 한 성조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隊第十一[去聲](24b면 6행~25b면 4행), 蒸第二十六[下平聲](57b면 8행~58b면 3행)과 67b면 4행 이하의 入聲韻 전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래에 책 전체의 韻別 배분 상황을 해당 張·行次와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第一, 第二 …… 등은 01, 02 …… 등으로 대체함).

東01[上平聲]	董01[上聲]	送01[去聲]	<01a:02>
冬02[上平聲]	腫02[上聲]	宋02[去聲]	<02b:07>
江03[上平聲]	講03[上聲]	絳03[去聲]	<04a:03>
支04[上平聲]	紙04[上聲]	寘04[去聲]	<04b:04>
微05[上平聲]	尾05[上聲]	未05[去聲]	<11a:03>
魚06[上平聲]	語06[上聲]	御06[去聲]	<12a:07>
虞07[上平聲]	麌07[上聲]	遇07[去聲]	<14a:03>
齊08[上平聲]	齊08[上聲]	霽08[去聲]	<18a:09>
佳09[上平聲]	蟹09[上聲]	泰09[去聲]	<21a:06>
灰10[上平聲]	賄10[上聲]	卦10[去聲]	<22b:01>
		隊11[去聲]	<24b:06>
眞12[上平聲]	軫12[上聲]	震12[去聲]	<25b:05>
文13[上平聲]	吻13[上聲]	問13[去聲]	<28a:09>
元14[上平聲]	阮14[上聲]	願14[去聲]	<29b:08>
寒15[上平聲]	旱15[上聲]	翰15[去聲]	<32a:03>
刪16[上平聲]	潸16[上聲]	諫16[去聲]	<34b:02>
先17[下平聲]	銑17[上聲]	霰17[去聲]	<35b:05>

cm”와 비교해보면, 이장희 소장본이 더 이른 시기에 채출된 판본이 아닌가 한다. 전국의 제 이본들을 조사하여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을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蕭18[下平聲]	篠18[上聲]	嘯18[去聲]	<39b:03>
肴19[下平聲]	巧19[上聲]	效19[去聲]	<42a:07>
豪20[下平聲]	皓20[上聲]	号20[去聲]	<43b:01>
歌21[下平聲]	哿21[上聲]	箇21[去聲]	<45b:03>
麻22[下平聲]	馬22[上聲]	禡22[去聲]	<47b:02>
陽23[下平聲]	養23[上聲]	漾23[去聲]	<49b:02>
庚24[下平聲]	梗24[上聲]	敬24[去聲]	<53b:04>
青25[下平聲]	迥25[上聲]	徑25[去聲]	<56a:06>
蒸26[下平聲]			<57b:08>
尤27[下平聲]	有27[上聲]	宥27[去聲]	<58b:04>
侵28[下平聲]	寢28[上聲]	沁28[去聲]	<62b:05>
覃29[下平聲]	感29[上聲]	勘29[去聲]	<64a:01>
塩30[下平聲]	琰30[上聲]	豔30[去聲]	<65a:08>
咸31[下平聲]	賺31[上聲]	陷31[去聲]	<66b:09>
		入聲屋01	<67b:04>
		沃02	<69a:04>
		覺03	<69b:07>
		質04	<70b:02>
		物05	<71b:07>
		月06	<72a:08>
		曷07	<73a:06>
		黠08	<74a:04>
		屑09	<74b:03>
		藥10	<75b:09>
		陌11	<77b:02>
		錫12	<79a:06>
		職13	<80a:04>
		緝14	<81a:06>
		合15	<81b:07>
		葉16	<82b:01>
		洽17	<83a:09>

※영인본의 목차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위의 표로써 목차를 대신할 수 있을 것임.

이상의 운별 배분 상황을 정리해보면, 『三韻通考』는 平聲 30韻, 上聲 29韻, 去聲 30韻, 入聲 17韻으로 106韻系 운서임이 드러난다.

체제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매 글자 밑에 小字로 2~3자의 극히 소략한 주석을 달고 있다는 점인데(다만, 한 글자에 7자 정도의 주석을 단 경우도 보이는데, 이는 해당 운의 끝 글자로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18a면 6~7행의 上聲字 瘦[因以飢寒死曰] 참조), 이는 한 책에 수많은 글자들을 담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주석에서 表題字와 동일한 자가 쓰일 경우 대부분 “|”로 표시하고 있으며, 주석 중에는 “古文”, “上同”, “俗” 등의 이체자 정보로 대신한 경우도 보인다.

끝으로 표제자 중에는 ()로 감싼 글자들이 다수 보이는데, 이들은 복수음자임을 표시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空”(平·去), “虹”(平·去), “洚”(東平·冬平), “離”(平·去), “積”(寘去·昔入), “切”(屑入·霽去) 등이 해당되는데, 대부분 특수한 의미로 쓰이는 쪽에 표시되고 있다. (예) (空)[缺也]<1a>,

空[虛 |]<2a>, (虹)[縣名]<2a>, 虹[蠅螈]<2b> 등 참조.⁶⁾

2.3. 『三韻通考』는 「序」나 「跋」이 없어 이 운서의 由來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된 바 있다.

①李晔光(1563~1628)은 “三韻通考, 出於倭國而便於考閱, 於今用之.”(『三韻通考』는 왜국에서 나온 것으로 참고와 열람에 편리하여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芝峰類說』 권7 經書部 「書籍」>라고 함으로써 일본에서 유래된 운서라는 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朴斗世(1650~1733)가 “三韻通考, 不知何人所編, 或曰傳自日本而古今通用.”(『三韻通考』는 누가 편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자는 일본에서 전해온 것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널리 쓰였다.)<『三韻補遺』(1702) 「跋文」>라고 한 데에서나, 李衡祥(1653~1733)이 “今之三韻通考, 亦番僧所纂而傳自日本者也.”(지금의 『三韻通考』도 또한 西蕃僧이 찬술하여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것이다.)<『瓶窩先生文集』 권13 雜著 「書三韻通考後」>라고 한 데에서도 보인다.

②李瀾(1681~1763)은 “三韻通考, 我人從倭得之 …… 至於我國之李相國集, 國中已失, 復從倭來復刊于世.”(『三韻通考』는 우리나라 사람이 왜국에서 얻은 것인데, …… 심지어 우리나라의 『(東國)李相國集』마저도 왜국에서 다시 가져와 복간하여 세상에 내놓았다.)<『星湖僊說』 권8하 「韻考」>라고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失傳되어서 일본에서 다시 가져와 복간한 운서라는 설을 제기한 바 있다.

③이와는 달리 李德懋(1741~1793)는 “案芝峰, 則似以爲倭人所撰, 而僊說所論, 有若我國本有者, 中間失之, 復從倭得之, 然蓋未詳其來歷也.”(상고하건대 『芝峰(類說)』에서는 일본인이 편찬한 것으로 본 듯하고, 『(星湖)僊說』의 所論에서는 우리나라에 본래 있던 것을 중간에 분실했다가 다시 왜국으로부터 얻은 것이라 하였으나 그 내력은 끝내 未詳이다.)<『靑莊館全書』 권60 蟲葉記 7>라고 함으로써 위의 일본 관련설을 부정하는 한편, “三韻通考未知緣起, 似是世宗朝命儒臣編定者.”(『三韻通考』는 그 기원을 알 수 없으나, 세종조에 유신에게 명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雅亭遺稿』 「奎章全韻 凡例」>라고 함으로써 세종대에 유신들이 편찬한 운서라는 新說을 제기한 바 있다.⁷⁾

④李圭景(1788~?)은 더 나아가 “我東音韻, 國初專襲麗朝, 麗朝沿用元韻, 故有三韻通考之書, 殊失四聲之舊名, 至正廟朝御定奎章全韻而始合四聲之原法.”(우리나라 음운으로 말하면 오로지 고려조의 예를 따랐다. 고려조는 원나라의 운서(※문맥으로 보아 『中原音韻』(1324)를 말한 듯)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三韻通考』라는 운서가 있어 자못 四聲의 옛 이름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정조조의 『御定奎章全韻』에 이르러서 비로소 四聲의 原法에 부합하게 되었다.)<『分類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傳類 2 「韻書辨證說 2」>라고 함으로써 이미 고려조에 나온 운서라는 新說을 보탠 바 있다.

이상의 諸 說들은 크게 日本 由來(또는 傳來)說(①~②), 韓國 所撰說(③~④)로 나누어볼 수 있겠는데, 그 어느 것도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는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다만, “凍”<1a>, “冢”<2a> 등 근거가 분명치 않은 글자들에 ()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增補三韻通考』에서는 그 표시가 삭제되어 있다.

7) 李德懋는 그 근거로 “徐居正의 『筆苑雜記』에는, “우리나라 세대에 儒臣들에게 局別로 분류하여 『高麗史』, 『治平要覽』, 『兵要』, 『韻書』, 『五禮儀』, 『經書音解』 등을 동시에 편집 찬술하도록 하고 이것들에 낱말이 裁可를 가하여 모두가 완성된 뒤에는 하루에 수십 권씩 御覽하였다”라고 했다. 내 생각으로는 『國朝寶鑑』과 『筆苑雜記』에 기재된 二則[『東國正韻』과 『韻書』를 말한다]은 지금의 『三韻通考』가 아닌가 싶은데, 『三韻通考』는 일본에서도 간행되어 우리나라에까지 흘러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靑莊館全書』 권60 蟲葉記 7 「三韻通考」: 심경호(2009: 150)>라고 함으로써 徐居正이 말한 문제의 『韻書』가 바로 『三韻通考』일 가능성을 든 바 있다.

『三韻通考』의 由來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 『三韻通考』의 체재나 내용들에서 실마리를 구하여 종전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한 바, 현재까지 그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106韻系인 『平水新刊韻略』(1229, 王文郁) 계통의 『新刊排字禮部韻略』을 底本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三韻相配式 체재로 改編한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그 개편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첫째는 고려 말(1300년 경)에 편찬된 운서라는 설로 金敏洙(1980), 康寔鎭(1999)의 논의가 대표적이다(李承英·湯澤質幸(2007)에서는 고려 말엽 즉, 1392년 전후에 무개를 두고 있음). 이 논의들에서는 일본의 虎關師練(1278~1346)이撰한 『聚分韻略』(1307)이 高麗本 『三韻通考』를 본떴다는 점⁸⁾을 근거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 康寔鎭(1999: 11)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禮部韻略』이 우리 땅에서 가장 먼저 발행된 것은 “大德庚子良月梅谿書院刊行”이라는 刊記가 붙은 『新刊排字禮部韻略』五卷(高麗 忠烈王 26년, 1300년)이다. 따라서 『三韻通考』도 이와 같은 시기 혹은 조금 늦은 시기의 高麗의 운학자에 의해 편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한국 최초의 『新刊排字禮部韻略』이 安秉禧(1972/1992: 90-91)에 의하여 高麗版이 아니라, 조선조 天順八年 즉, 世祖 9년(1464)에 중국의 原刊記를 그대로 둔 채 復刻한 판본임이 밝혀진 점이다. 둘째는 李承英·湯澤質幸(2007)의 논의에 따를 때 일본의 『聚分韻略』 원간본(1307년판)은 중국의 전통적인 운서와 동일 체재로 된 것인데, 그것이 三重韻 체재로 수정된 최초 판본이 “文明 辛丑刻梓薩陽和泉莊”이라는 刊記가 달린 1481년판이라는 점이다. 14세기 극초로 본 두 일이 모두 15세기 후반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이상 『三韻通考』 편찬 시기를 고려 말로 소급시키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선 중기 경에 편찬된 운서라는 설로 姜信沆(2000: 191-193)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 근거로는 『三韻通考』에 관한 기록이 대개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고, 초기에는 『禮部韻略』을 널리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므로 『三韻通考』式 삼단계 형식으로 개편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일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필자로서는 후자의 견해가 사실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 하나,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앞서 『三韻通考』가 『新刊排字禮部韻略』을 底本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편한 운서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를 알려주는 근거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2.2.에서 『三韻通考』가 106韻系 운서임을 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역대 중국운서들 중에서 후보들을 압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서 106韻을 보이는 운서로는 『平水新刊韻略』(1229, 王文郁)과 『韻府羣玉』(1334, 陰時夫)의 둘뿐이다(강신항 2000: 24-25). 李德懋가 「奎章全韻 凡例」에서 “三韻通考 盖出於禮部韻略·韻府羣玉·洪武正韻諸書 ……”(『三韻通考』는 『禮部韻略』·『韻府羣玉』·『洪武正韻』 등 여러 운서에서 나왔는데 ……)라고 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다만, 『洪武正韻』은 76韻 체재이므로 제외되어야 함).

둘째로는 『三韻通考』의 收錄字順을 들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東第一의 收錄字順을 보면, 두 운서 중에서 『三韻通考』는 『韻府羣玉』보다는 『禮部韻略』 계통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韻府羣玉』(106운): 東涑竦同銅桐僮峒筒童瞳 …

8) 그 근거로는 小倉進平(1940: 491)에서 일본에 전해지고 있는 어느 한 『三韻通考』의 말미에 忠陳이라는 사람이 “虎關의 『三重韻』은 『三韻通考』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서명한 것이 있다고 한 사실을 들고 있다.

『禮部韻略』(106운): 東涑竦同全童僮銅桐桐筒瞳 …

『三韻通考』(106운): 東涑竦同全童僮銅桐桐筒瞳 …

※姜信沆(1969a-b: 6), 이장희(2003: 114) 종합

그런데 『平水新刊韻略』 계통의 『禮部韻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발행된 것은 “大德庚子良月梅谿書院刊行”이라는 刊記가 붙어 있는 『新刊排字禮部韻略』 五卷이므로 『三韻通考』는 결국 『新刊排字禮部韻略』을 底本으로 우리나라에서 개편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만, 『三韻通考』와 『禮部韻略』 사이에 收錄字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장희(2003)의 고찰 결과에 따르면, 『三韻通考』는 전체적으로는 『禮部韻略』을 底本으로 삼되, 부분적으로는 『廣韻』을 참고하여 편찬한 운서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3. 『增補三韻通考』⁹⁾

『增補三韻通考』는 이름대로라면 『三韻通考』를 증보한 것으로 보기 쉬우나 이는 사실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增補三韻通考』 「凡例」 첫 머리에 “此只就三韻補遺, 略加增損, 正訛刪復耳”(여기에서는 단지 『三韻補遺』에 견주어 조금 가감하고 틀린 것을 바로잡고 중복된 것을 없앴을 뿐이다)라고 함으로써 실제로는 『三韻補遺』를 증보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三韻補遺』는 그 첫 장 題下에 “鶴城 朴斗世撰輯”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跋文」¹⁰⁾에 따라 朴斗世(1650~1733)가 肅宗 28년(1702)에 간행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三韻補遺』가 『三韻通考』의 미비점을 보유함에 있어서 三韻相配式 체제를 버리고 전통적인 운서의 체제로 되돌아가 上平聲·下平聲·上聲·去聲·入聲의 5卷 2冊의 체제로 간행되었다가 『增補三韻通考』에 와서는 내용상으로는 『三韻補遺』를 계승하되, 체제상으로는 『三韻通考』의 삼단식 체제를 잇고 있다는 점이다.

3.1. 『增補三韻通考』에는 「凡例」가 붙어 있을 뿐 「序」나 「跋」이 없어 그 편찬자나 간행 연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李德懋의 기록에 의하여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三韻通考 …… 金濟謙與成孝基同編增補, 洵爲近正.”(『三韻通考』는 …… 金濟謙과 成孝基가 함께 증보하니 참으로 제대로 된 듯하다.)<奎章全韻 凡例>

“今世所行三韻通攷, …… 總九千七百三十二字, 金承旨濟謙增千七百九十八字, 通用科場.”(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三韻通考』는 …… 총 9,732자인데, 김제겸 승지가 1,798자를 보태어 고거 시험장에서 통용되고 있다.)<『靑莊館全書』 권60 蟲葉記 7>

9) 『增補三韻通考』 부분의 기술은 康寔鎭(1999: 14-18, 20-23)의 논의에 크게 의지한 것임을 밝혀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10) “壬午自晉陽解歸, 居閑有年, 遂集古今韻語字書, 一從三韻字次, 正其訛而補其闕, 且引經籍一二句語, 以訂其義, 韻下又增外餘字, 分爲上下二卷, 三閱歲甫成, 及莅鶴城邑力彫刻未由鋟梓”(임오년 진양에서 직을 그만 두고 돌아와 한가로이 일 년여를 보내며 시간이 있어 마침내 고금의 운서와 자서를 모아 『三韻通考』의 字順을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經書에서 한두 語句를 인용하여 그 뜻을 바로잡았다. 『三韻通考』의 운 아래에 그 운 이외의 자를 보태어 상·하 2권으로 나누었다. 삼년 동안 교감하여 비로소 완성하였으며, 학성읍에 이르러 힘들여 새겨 판각을 끝내고 상제하였다.)

위의 두 기록에 따르면 『增補三韻通考』는 金濟謙이 편찬하였거나 또는 金濟謙과 成孝基가 공동으로 편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成孝基의 생애에 대해서는 전해오는 것이 없으나, 金濟謙(1680~1722)은 조선 景宗朝의 충신으로 본관은 安東이고 字는 必亨, 호는 竹醉이다. 영의정 金昌集의 아들로 숙부 金昌翁에게 受學하였다. 1705년(숙종 31) 進士가 되고, 1710년 洗馬로 기용되었으며 고양군수를 지냈다. 司僕寺僉正으로 재직 중 1719년(숙종 45) 增廣文科에 丙科로 급제하여 1721(경종 1년)에 承旨가 되었다. 1722년(경종 2) 金昌集이 老論 四大臣의 한 사람으로서 少論의 金一鏡과 陸虎龍 등에 의해서 賜死되자 蔚山에 유배되었다가 富寧으로 移配된 후 死刑 당하였으므로 『三韻補遺』의 간행 연대(1702)를 고려하면, 『增補三韻通考』는 1702~1722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2. 『增補三韻通考』도 『三韻通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조선 후기에 널리 보급되었으므로 국내 대부분의 도서관들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그 版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100張本

- ㄱ. 一蓑古 495.13-J437a/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간행연도 미상/ 목판본/ 1책(100장)/ 冊大: 20×14.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14.4×11.6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卷首에 凡例가 붙어 있고 四針眼訂으로 改裝되어 있으며 卷末 1장 落張

(2) 98張本

- ㄱ. 古復 3914-4A/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 미상·간행연도 1835년·간행자 芸館/ 戊申字本/ 1책(98장)/ 冊大: 30.5×20cm/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21.3×15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黑魚尾/ 表紙書名: 增補韻考全, 版心題名: 增韻/ 凡例가 卷末에 붙어 있고 五針眼訂으로 裝幀되어 있음.
- ㄴ. 奎 1580, 奎 1581, 奎 2578/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 미상·간행연도 미상·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98장)/ 冊大: 34.2×21.8cm/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21.6×15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黑魚尾/ 表紙書名: 增補韻考全, 版心題名: 增韻
- ㄷ. 奎 1597, 古 495.116-J466, 一蓑古 495.13-J437b/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 미상·간행연도 미상·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98장)/ 冊大: 31.2×20.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0.6×14.8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黑魚尾/ 表紙書名: 增韻(奎 1597), 增補三韻(古 495.116-J466), 版心題名: 增韻
- ㄹ. 古 3914-4A, 一蓑古 416-B149h, 一蓑古 495.13-J437s/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 미상·간행연도 미상·간행자 미상/ 목판본/ 1책(98장)/ 冊大: 31.4×20.7cm/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20.2×14.7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黑魚尾/ 表紙書名: 韻考(古 3914-4A), 增補三韻考(一蓑古 495.13-J437s), 正音通釋(一蓑古 416-B149h), 版心題名: 增韻, 卷頭書名: 華東正音通釋韻考(一蓑古 416-B149h)

(3) 95張本

- ㄱ. 古 3914-4, 想白古 411.5-J525/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간행연도 미상/ 목활자본/ 1책(95장)/ 冊大: 33×22.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5×18.5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表紙書名: 增補三韻通考(想白古 411.5-J525), 版心題名: 增補

(4) 94張本

- ㄱ. 古 3914-4B/ 金濟謙 等編(추정)·간행지 海州·간행연도 1826/ 목판본/ 1책(94장)/ 冊大:

20.5×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15.5×11.7cm, 有界 9行 14字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表紙書名: 三韻通考, 版心題名: 增韻

이 중에서 이번에 영인한 판본은 (2ㄱ)의 1835년(憲宗 1)芸館에서 간행한 戊申字本이다.

3.3. 영인본을 중심으로 『增補三韻通考』의 체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卷首題 “增補三韻通考” 아래에 협주로 [新增凡一千八百二十七字]라 되어 있고, 卷尾題 “增補三韻通考終” 아래에 “乙未秋芸館印”이라 되어 있으므로 전후 사정으로 보아 1835년에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책 전체의 韻別 배분 상황은 『三韻通考』와 완전 동일한데(단, 下平聲30 韻目字는 “塩”에서 “鹽”으로 수정되어 있음), 아래에 해당 張·行次와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一, 卅, 卅 등은 01, 20, 30 등으로 대체함).

東01[上平聲]	董01[上聲]	送01[去聲]	<01a:02>
冬02[上平聲]	腫02[上聲]	宋02[去聲]	<03a:04>
江03[上平聲]	講03[上聲]	絳03[去聲]	<04b:04>
支04[上平聲]	紙04[上聲]	寘04[去聲]	<05a:06>
微05[上平聲]	尾05[上聲]	未05[去聲]	<12b:06>
魚06[上平聲]	語06[上聲]	御06[去聲]	<14a:05>
虞07[上平聲]	麌07[上聲]	遇07[去聲]	<16a:08>
齊08[上平聲]	齊08[上聲]	霽08[去聲]	<21a:07>
佳09[上平聲]	蟹09[上聲]	泰09[去聲]	<24b:03>
灰10[上平聲]	賄10[上聲]	卦10[去聲]	<26a:01>
		隊11[去聲]	<28b:02>
眞12[上平聲]	軫12[上聲]	震12[去聲]	<29b:04>
文13[上平聲]	吻13[上聲]	問13[去聲]	<32b:06>
元14[上平聲]	阮14[上聲]	願14[去聲]	<34a:09>
寒15[上平聲]	旱15[上聲]	翰15[去聲]	<37a:03>
刪16[上平聲]	潸16[上聲]	諫16[去聲]	<40a:02>
先17[下平聲]	銑17[上聲]	霰17[去聲]	<41a:07>
蕭18[下平聲]	篠18[上聲]	嘯18[去聲]	<46a:03>
肴19[下平聲]	巧19[上聲]	效19[去聲]	<49b:01>
豪20[下平聲]	皓20[上聲]	号20[去聲]	<50b:08>
歌21[下平聲]	哿21[上聲]	箇21[去聲]	<53a:06>
麻22[下平聲]	馬22[上聲]	禡22[去聲]	<55b:03>
陽23[下平聲]	養23[上聲]	漾23[去聲]	<58a:01>
庚24[下平聲]	梗24[上聲]	敬24[去聲]	<62b:04>
青25[下平聲]	迥25[上聲]	徑25[去聲]	<65b:06>
蒸26[下平聲]			<67b:05>
尤27[下平聲]	有27[上聲]	宥27[去聲]	<68b:03>
侵28[下平聲]	寢28[上聲]	沁28[去聲]	<73a:04>
覃29[下平聲]	感29[上聲]	勘29[去聲]	<74b:04>
鹽30[下平聲]	琰30[上聲]	豔30[去聲]	<76a:09>
咸31[下平聲]	賺31[上聲]	陷31[去聲]	<78a:07>

屋01[屬東] <79a:08>
 沃02[屬冬] <81a:02>
 覺03[屬江] <81b:07>
 質04[屬眞] <82b:04>
 物05[屬文] <84a:02>
 月06[屬元] <84b:04>
 曷07[屬寒] <85b:03>
 黠08[屬刪] <86b:03>
 屑09[屬先] <87a:04>
 藥10[屬陽] <88b:06>
 陌11[屬庚] <90b:02>
 錫12[屬青] <92b:01>
 職13[屬蒸] <93a:09>
 緝14[屬侵] <94b:04>
 合15[屬覃] <95a:07>
 葉16[屬鹽] <96a:03>
 洽17[屬咸] <97a:04>

※入聲 01沃 아래의 夾注는 [四聲屬東○下倣此]로 되어 있는데, [屬東]으로 줄인 것임. 또한 版心題 “增韻”의 위 아래에 平·上·去·入聲이 시작되는 곳에 “東, 董, 送” 등의 韻目字를 새겨넣음으로써 열람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增補字의 처리는 각 운이 끝난 다음에 “○[增補]”라 표기한 다음에 일괄 수록하고 있다. 또한 收錄字 및 그 順序는 『三韻補遺』에서 중복된 글자들을 빼고 같은 字素를 지닌 글자들을 함께 모아 배열하고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三韻通考』와 마찬가지로 표제자 중에는 ()로 감싼 글자들은 복수음자임을 표시하는 듯한데, 일부 『三韻通考』의 잘못을 바로잡은 곳도 있다.

4. 結言

지금까지 『三韻通考』와 『增補三韻通考』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운서 편찬의 과정 및 흐름을 개관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필자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중세 한국한자음 또는 그 이전의 고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연구를 목표로 삼고 정진해왔거니와, 근대 운서에 대한 고찰은 필자로서는 색다른 경험이자 앞으로 이 방면의 자료들을 좀더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최근에 이르러 근대 운서에 대한 연구가 다소 정체된 느낌이 없지 않거니와, 이번의 영인을 계기로 이 방면의 연구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三韻通考』와 『增補三韻通考』가 후속되는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朴性源), 『三韻聲彙』(1751, 洪啓禧), 『奎章全韻』(1796?, 李德懋?)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대로 『華東正音通釋韻考』와 『三韻聲彙』는 『三韻通考』식의 삼단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三韻通考』가 조선조에 미친 영향력의 크기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두 운서는 단지 체제상의 襲用에 그치지 않고 中國의 時音까지도 정확히 적으려 했다는 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운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奎章全韻』은 三段 體裁를 버리고 四段 體裁로 넘어간 운서로서 한 면에 平·上·去뿐만 아니라 入聲韻도 보여야 한다는 어찌면 원리주의자적인 文體反正의 흐름 속에 등장한 신 체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존재다. 체제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奎章

全韻』은 내용상으로는 『三韻通考』, 『三韻補遺』, 『增補三韻通考』,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종합한 조선 후기 운서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三韻通考』의 끈질긴 생명력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참고 논저]

- 康寔鎭(1999), 「朝鮮의 韻書 研究(2)-『三韻通考』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54, 釜山大學校 人文學研究所.
- 姜信沆(1969a), 「韓國韻書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1)」, 『論文集(人文·社會系)』 14, 成均館大學校.
- 姜信沆(1969b), 「韓國의 禮部韻略」,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 강신항(2000), 『한국의 운서』(國語學叢書 2), 太學社.
- 金敏洙(1980), 『新國語學史』, 一潮閣.
- 심경호(2009), 「한국의 韻書와 운서 활용 방식」, 『漢字漢文研究』 5, 高麗大學校 漢字漢文研究所.
- 安秉禧(1972/1992), 「임진란 직전의 국어사 자료」, 『國語史 資料 研究』, 文學과 知性社.
- 李承英·湯澤質幸(2007), 「日本の韻書と韓國の韻書-聚分韻略と三韻通考-」, 『日本學報』 71, 韓國日本學會.
- 이장희(2003), 「『三韻通考』의 底本에 대하여」, 『語文學』 80, 韓國語文學會.
- 정경일(2002), 『한국운서의 이해』(대우학술총서 541), 아카넷.
- 趙賢柱(1998), 「삼운통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小倉進平(1940),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